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전국신도시의 중심축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92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29일 (음력 10월 20일) 목요일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로 이끌자

❷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가칭 '2012여수엑스포 개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이와 함께 엑스포 개최에는 아직 태부족한 여수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대회 성공의 관건이다.

인력·예산 지원할 토대 마련 급하다

내년 2월 특별법 국회 제출

2012년 여수엑스포 준비를 위한 급선무는 실무기구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여수엑스포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가칭 엑스포특별법을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 17대 국회 임기내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2012년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내년 하반기께 출범 예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의 설립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 조직위 수익사업 등이 담기게 된다.

그러나 오는 2012년 5월 12일 개막예정인 여수엑스포는 유치 확정 시점부터 4년 반 가량밖에 남지 않아 준비 기간이 그리 느긋한 형편은 아니다.

더욱이 17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않은 상황인데다 12월 대선이 코 앞이어서 연말까지 각 정당은 당장 엑스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를 우선할 것으로 예상돼 서두르지 않으면 엑스포 준비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김영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데 4년 반이라는 기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어 조직위를 빨리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정부 관련 부처와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위 간 일사불란한 체제 구축도 준비기간이 넉넉치 않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경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실무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조직위로 이원화돼 종종 마찰을 빚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의사결정 구조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에는 정부대표와 조직위원장을 겸임해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결과 촉박한 시간속에서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대전엑스포는 두 직책을 한 사람이 겸해서 모든 일을 바로 결심하고 집행할 수 있게 했던 점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주변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수엑스포가 시작될 경우 일일 피크타임 교통인원이 12만~13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박치경기자 unipark@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 2012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대표단 환영행사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28일 오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 오현섭 여수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광현 여수시준비위원장, 김성곤 국회의원(왼쪽부터) 등 유치대표단이 화동들을 안고 시민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 영웅들 돌아왔다"

엑스포 대표단 귀국…내일 여수서 범국민보고대회

광주·전남 시도민의 10년 숙원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대한민국 대표단이 파리발 전세기로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관련기사 3면〉

김재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이인기 국회 특위위원장 등 2012 여수엑스포 유치 대표단은 이 날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꽹과리를 치며 환영 플래카드를 든 여수시민 300여 명의 환호를 받았다.

우람백년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김 위원장은 입국 후 공항 귀빈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아주 컸고 관과 민이 잘 협조해 유치활동을 한 결과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012여수엑스포가 인류에게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현섭 여수시장은 "2012 여수엑스포를 역사상 가장 멋진 대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와 오 시장 등 전남지역 유치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수공항에 도착해 전남도, 여수시 공무원과 시민 1천 여명의 환영을 받았으며 여수시청 앞에 마련된 별도의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여수시내 곳곳에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념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전날 2012여수엑스포 유치 확정의 감동을 이어갔다.

박 지사와 오 시장은 여수시청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원은 국제적 해양 관광의 명소이자 동북아 해양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5대 해양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금부터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범국민보고대회를 오는 30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열리는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이 참석해 2012여수엑스포 유치 과정을 설명하고 성원해준 국민들과 여수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계획이다. 또 여수공항에서 대회장인 진남체육관까지 이어지는 대표단 카퍼레이드와, 시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면계약서 찍힌 도장 이명박후보 것과 동일"

검찰 잠정 결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은 28일 '이면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금융감독원 제출 서류에 날인한 이 후보의 도장과 동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대검 문서감정실은 2000년 2월 이 후보가 BBK 주식 지분을 김경준씨(41·구속)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글계약서에 찍힌 이 후보 도장과 같은해 6월 이 후보가 금감원에 제출한 EBK의 자금조달방법 확인서에 찍은 도장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수사팀에 통보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한글계약서와 금감원 공식문건에 찍힌 도장은 LKe의 사용인감으로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나라당은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LKe뱅크에 보관돼 있던 이 후보의 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감정 결과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견지해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양측의 진술이나 해명 등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자금 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의 도장이 이 후보의 것이 맞다 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의 위조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신춘문예의 역사를 이끌어 온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수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문학에 새 지평을 열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12월 15일 마감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光州日報社